

# S-HTP 검사의 반응 특성 – 한의학적 칠정과 인지과정을 중심으로

정서윤, 허신철, 배진수\* 김경옥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청연한방병원 신경정신과\*

## Response Characteristics of S-HTP Tests – Seven Emotions and Cognitive Processes

Seo-yun Jeong, Shin-chul Hur, Jin-soo Bae\*, Kyeong-ok Kim

Departments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hung Yeon Korean Medicine Hospital

Received: November 30, 2020

Revised: December 13, 2020

Accepted: December 30, 2020

### Correspondence to

Kyeong-ok Kim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Dongshin University Gwangju  
Oriental Hospital, 141 Wolsan-ro,  
Nam-gu, Gwangju, Korea.

Tel: +82-62-350-7206

Fax: +82-62-350-7141

E-mail: [avecinok@hanmail.net](mailto:avecinok@hanmail.net)

**Objectives:** S-HTP is a projective test of cognitive activ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sponse characteristics in the S-HTP test as they related to seven emotions and cognitive processes. **Methods:** 153 students underwent S-HTP testing. 10 students were excluded and a total of 143 students' data was used for the study. 143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by SCAT. A survey was conducted on seven emotions and cognitive processes painting the Whole picture, house, tree, and person, and after receiving IRB review exemption, the chi-square test was conducted to check homogeneity of the groups by gender and age. Finally, frequency analysis by constitution for each item was conducted.

**Results:** The reaction characteristics of S-HTP, focusing on the seven emotions and cognitive processes detailed by Korean Medicine, are as follows: 1. The primary sentiment while drawing during S-HTP was 'Joy (hui)' followed by 'Thought (sah)'. 2. The sentiments while painting during the S-HTP test, and the emotions of looking at the picture after the S-HTP test, increased in 'Joy (hui)' and decreased in 'Thought (sah)'. 3. 'Thought (Sah)' was the highest scored process while drawing S-HTP, followed by 'jee (智)'. However, 'ryeo (慮)' was similar to 'jee (智)' in an unclassifiable constitution.

**Conclusions:** The primary characteristics of the S-HTP test response are 'Joy (hui)' and 'Thought (sah)' in emotion, and 'sah (思)' and 'jee (智)' in cognitive proces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verify this during the S-HTP test.

**Key Words:** Response characteristics of S-HTP, Seven emotions, Korean medical cognitive process.

## I. 서론

한의 임상 진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인성검사 중 투사적 검사 방법으로 로르샤흐 검사(Rorschach Inkblot Test)와 주제통각검사(hematic Apperception Test, TAT), 문장완성검사(Sentence Completion Test, SCT)와 특정 주제의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그림검사가 있다. 이 중 특정 주제의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으로는 집-나무-사람(House-Tree-Person, HTP) 검사가 대표적이고, 변형된 형태로 S-HTP (Synthetic House-Tree-Person) 검사와 K-HTP (Kinetic House-Tree-Person) 검사가 있다.

그림 그리기 같은 창조적인 작업은 개인의 내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많이 반영하므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sup>1)</sup>. 이렇듯 무의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림을 투사적 그림이라고 하며, Koppitz는 투사적 그림은 '비언어적 언어'라고 하면서 그림이 그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였다<sup>2)</sup>. 이는 그림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느낌과 생각, 공상, 갈등, 걱정,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지각을 담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림을 그리는 활동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피험자들은 개인의 발달사와 관련해 자신 및 자신의 환경과 관련된 경험들을 그림에 투사한다.

이러한 투사적 그림의 활동에 대해 한의학적으로는 五神(오신)의 작용과 心意思想慮智(심의지사려지)의 인지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칠정은 오신의 작용에 의한 반응이라는 점에서 역시 투사적 그림 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한의학계에서 HTP와 관련된 연구보고는 정 등<sup>3)</sup>의 사상체질에 따른 반응특성에 대한 고찰과, 박 등<sup>4)</sup>의 미술치료의 한 방법으로 조현병 환자에게 시도한 것을 보고한 것이 있는 정도로 미비하며, 특히 한의학적 칠정과 인지과정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보고는 없었다.

이에 S-HTP 검사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 중의 반응 특성을 알기 위하여 실습 중에 S-HTP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과정에서의 칠정, 인지과정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알게 된 한의학적 칠정과 인지과정의 반응 특성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 II.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2014년도부터 2020년도 기간 동안 ○○대학에서 생리학 및 한방신경정신과학 교과과정을 수강한 311명 중에서 웹 기반 통합체질진단 시스템인 SCAT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 SCAT)과 S-HTP test 및 칠정설문지, 인지과정설문지 자료를 얻을 수 있었던 1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 및 설문지를 시행하였으나 설문지에 무응답항목이 있는 등 태도가 불성실한 10명을 제외한 143명(남: 93, 여: 50)을 대상으로 S-HTP 실시 과정에서 피검자의 인지 및 정서 상태에 대해 설문지를 통해 살펴보고, 사상체질에 따른 특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검사와 설문지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로 설계하였다. 먼저 S-HTP 검사를 실시하고, 칠정관련 설문지와 인지과정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교 ○○한방병원 IRB의 심의 면제 승인(DSGOH\_E\_2020\_002)을 받은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측정 도구

#### 1) 웹 기반 통합체질진단 시스템 - SCAT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

SCAT은 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사상체질 진단틀로서 23개 한방 기관에서 획득한 3,000여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면, 음성, 체형, 설문의 종합적 체질요소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sup>5,6)</sup>.

오퍼레이터가 웹페이지를 통하여 사진, 음성, 체형 정보를 업로드 하면, 대상자가 직접 응답한 설문기록과 함께 분석하여, 개별 요소별 및 통합된 체질진단 결과를 보여준다. 진단결과 값은 체질별로 0~100%의 확률값으로 결정되며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체질을 대상자의 해당 체질로 판정하는데 이때 체질별 확률값의 합은 100%이다<sup>7)</sup>.

#### 2) S-HTP 투사검사

S-HTP test는 한 장의 종이에 집, 나무, 사람을 그리게 하여 세 요소 간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투사 검사법으로, 쿠노, 도쿠다, 오기노(九野, 徳田, 菰野)가 다면적 집-나무-사람의 방법과 다이아몬드의 방법을 결합하여 개발한 그림

검사이다<sup>7)</sup>.

준비물은 A4 용지, 4B 연필, 지우개이고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이를 가로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집과 나무와 사람을 넣어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림이 완성된 뒤에 자유롭게 질문 하고, 피검자의 상황에 따라 그려진 사람이 누구인지, 몇 살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을 유연하게 질문한다. 그림의 해석에서는 집-나무-사람의 통합성, 그림의 크기, 부가물, 원근감, 집-나무-사람의 관련성, 그림 형식, 절단, 수정 등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한다<sup>7)</sup>.

### 3) 칠정과 인지 관련 설문 문항

본 연구에서의 S-HTP test를 실시하고 난 후, 그림 그릴 때의 감정은 한의학적 칠정을 확인하고, 그림의 내용은 한의학적 인지과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칠정은 희(喜, 기뻐하는 것), 노(怒, 성내는 것), 우(憂, 우울해 하는 것), 사(思, 집중하여 있는 것), 비(悲, 슬퍼하는 것), 경(驚, 놀라는 것), 공(恐, 겁내는 것) 등 7가지의 정서 상태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로, 정<sup>8)</sup>의 연구에서 사용한 칠정의 내용을 확인할 때 사용하던 것을 설문 문항으로 하였으며, 전체 그림을 그릴 때의 감정, 사람, 나무, 집 그릴 때의 감정과 집에서 느껴지는 칠정을 확인하였다. 칠정과 인지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설문지를 구할 수 없어 ○○대학 생리학, 병리학, 신경정신과학 교수가 논의하여 작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칠정과 관련된 설문은 그림을 그렸을 때의 감정과 그 이후 그림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과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희, 노, 우, 사, 비, 공, 경’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한의학적 인지과정은 심(心, 마음을 두는 것), 의(意, 마음 속에 기억하는 것), 지(志, 의가 존재하는 것), 사(思,志에 따라 변화를 살피는 것), 려(慮, 思에 근거하여 멀리 내다보는 것), 지(智, 慮에 의거하여 사물을 처리하는 것)이다. 인지과정의 설문은 ○○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병리학 교수와 신경정신과 교수가 논의하여 결정하였으며, ‘심’은 ‘어디선가 본 듯한 상태’를, ‘의’는 ‘대상에 대한 최근 인상’, ‘지(志)’는 ‘대상에 대한 기억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는 ‘자신이 가장 평범한 또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려’는 ‘자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

각되는 것’을, ‘지(智)’는 ‘자신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전체 그림과 사람, 나무, 집에 대하여 무엇을 그린 것인지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 3.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dow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별, 연령에 대한 인구학적 조사 및 사상체질 그룹 간 동질성 확인을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해서는 체질별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인적사항

전체 143명의 그룹에 따른 성별과 나이는 Table 1와 같다.

SCAT을 통해 감별된 체질 중 태음인은 41명, 소양인 32명, 소음인 42명 그리고 체질 감별이 명확하지 않은 그룹(이하 미분류)은 28명이었다. 연령분포는 25세 이하 18명, 26세~30세 88명, 31세 이상 37명이었다. 사상체질 군에 대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연령에서 군별 동질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 2. 전체 그림의 반응 특성

전체 그림을 그릴 때의 감정에 대한 설문지 조사에서 그림을 그릴 때의 감정은 ‘희’와 ‘사’의 응답이 다른 정서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Fig. 1).

이 중 소양인과 태음인은 희와 사의 편차가 커 즐거운 감정이 집중하는 것보다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소음인과 미분류군에서는 희와 사의 분포 차이가 크지 않아서 즐거운 감정과 집중하는 상태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체 그림을 그릴 때의 인지과정은 사의 빈도가 가장 우세하였고, 지(智)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Fig. 2).

이 중 소양인과 태음인은 사와 지의 빈도가 가장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렸다고 응답하였으나, 소음인과 미분류군에서는 사와 지(智)의 빈도 차이가 크지 않아서, 평범한 것과 이상적인 것을 그렸다고 응답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Variable	Item	Constitution	Frequency	Percent (%)	p-value
Sex	Male	Taeyangin	0	.00	.086
		Taeumin	32	22.38	
		Soyangin	22	15.38	
		Soeumin	25	17.48	
		Not classified	14	9.79	
		Total	93	65.03	
	Female	Taeyangin	0	.00	
		Taeumin	9	6.29	
		Soyangin	10	6.99	
		Soeumin	17	11.89	
		Not classified	14	9.79	
Total	Total	50	34.97		
Age	≤25	Taeyangin	0	.00	.074
		Taeumin	8	5.59	
		Soyangin	2	1.40	
		Soeumin	8	5.59	
		Not classified	0	.00	
		Total	18	12.59	
	26~30	Taeyangin	0	.00	
		Taeumin	23	16.08	
		Soyangin	18	12.59	
		Soeumin	27	18.88	
		Not classified	20	13.99	
		Total	88	61.54	
	31 ≤	Taeyangin	0	.00	
		Taeumin	10	6.99	
		Soyangin	12	8.39	
		Soeumin	7	4.90	
		Not classified	8	5.59	
Total		37	25.87		
Total	Total	14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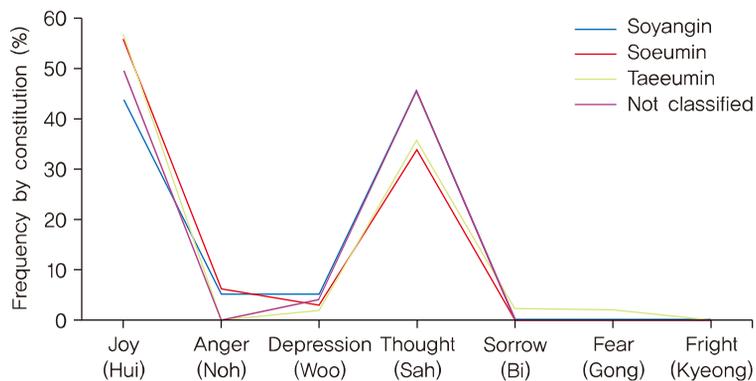


Fig. 1. Seven emotions in the whole picture.

### 3. 집 그림의 반응특성

집 그림을 그릴 때의 감정은 ‘희’와 ‘사의 정서 빈도가 우

세하게 나타났다(Fig. 3).

이 중 소양인과 태음인은 희와 사의 빈도 편차가 커 즐거운 감정이 집중하는 것보다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소음

인과 미분류군에서는 희와 사의 빈도 차이가 크지 않아서, 즐거운 감정과 집중하는 상태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또, 그린 집에서 느끼는 감정 역시 '희'와 '사'의 정서 빈도가 우세하게 나타났다(Fig. 4). 전체적으로 집을 그릴 때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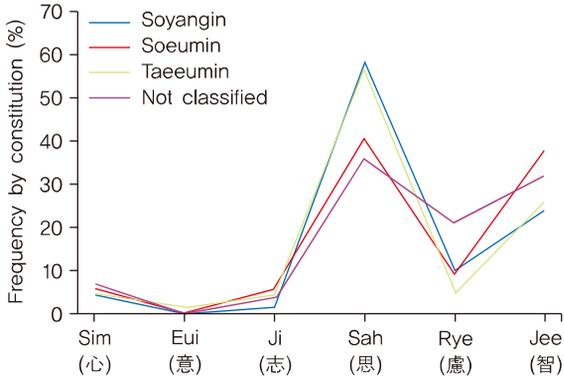


Fig. 2. Korean medicine recognition process when painting the whole picture.

그려진 집을 바라볼 때 '희'의 감정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미분류군에서는 그릴 때와 그려진 그림에서 느끼는 칠정은 같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집을 그릴 때의 인지과정은 '사'의 빈도 가장 우세하였고, '려'와 '지(智)'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Fig. 5).

이 중 소양인, 소음인과 태음인은 '사'와 '려, 지(智)'의 빈도 편차가 커 가장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렸다고 답하였으나, 미분류군에서는 사와 려, 지(智)의 빈도 편차가 크지 않아서, 평범하거나 합리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 중 하나를 그렸다고 답하였다.

#### 4. 나무 그림의 반응특성

나무 그림을 그릴 때의 감정은 '희'와 '사'의 정서 빈도가 우세하게 나타났다(Fig. 6).

이는 즐거운 감정이 대부분이며, 그 다음은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중 태음인은 다른 체질과 달리 '희'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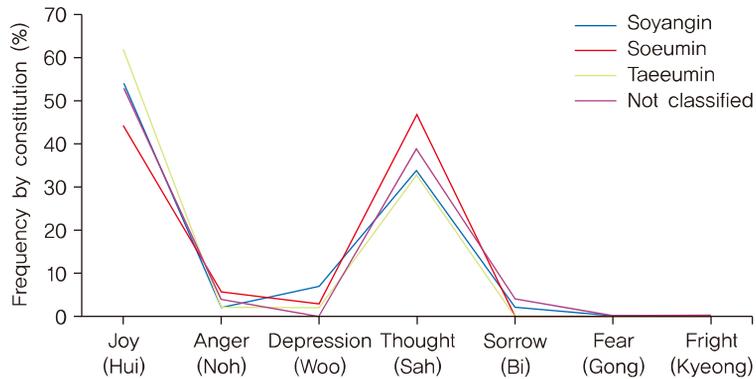


Fig. 3. Seven emotions of drawing a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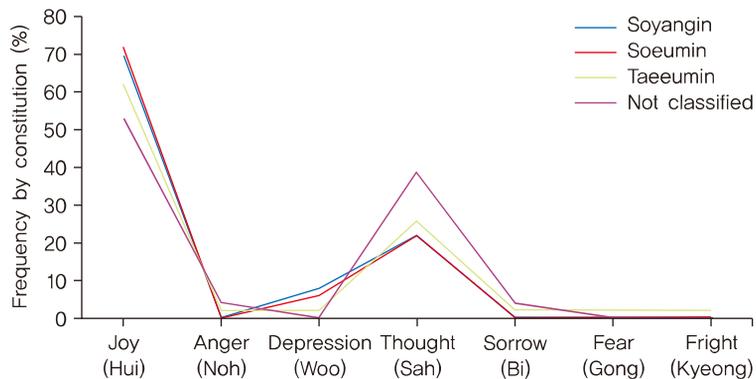


Fig. 4. Seven emotions felt in a house painting.

의 빈도 편차가 더 커 즐거운 감정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나무를 그릴 때의 인지과정은 '사'가 빈도가 가장 많았고, '지(智)'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Fig. 7).

모든 군에서 가장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렸다고 답하였으며, 그 외 이상적인 것에 대한 것이나 어디선가 본 듯한 것을 그렸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미분류군에서는 가장 평범하다고 한 부분이 다른 군보다 적고, 이상적이거나 어디선가 본 듯한 것을 그렸다는 답이 다른 군보다 많게 나타났다.

### 5. 사람 그림의 반응특성

전체 그림을 그릴 때의 감정은 '회'와 '사'의 정서 빈도가 우세하게 나타났다(Fig. 8).

모든 체질에서 즐거운 감정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집중하는 상태로 나타났다.

그러진 그림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회'가 매우 우세하게 나타났다(Fig. 9). 그릴 때의 감정보다 '회'는 증가하고, '사'는 감소하였다.

또한 사람을 그릴 때의 인지과정은 '사'가 빈도가 가장 많았고, '지(智)'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Fig. 10).

모든 군에서 가장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렸다고 답하였으며, 그 외 이상적인 것에 대한 것이나 어디선가 본 듯한 것을 그렸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소음인에서는 다른 군보다 이상적인 것을 그렸다는 답이 높았으며, 미분류군에서는 가장 평범하다고 한 부분이 다른 군보다 적고, 이상적이거나 어디선가 본 듯한 것을 그렸다는 답이 다른 군보다 많게 나타났다.

## IV. 고찰

투사 검사는 심리 검사의 주요 기법 중 하나로 수검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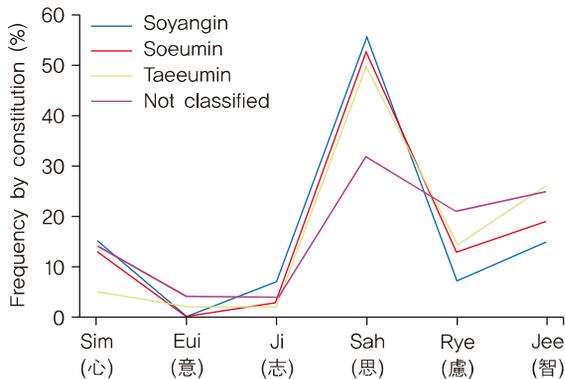


Fig. 5. Korean medicine recognition process when painting a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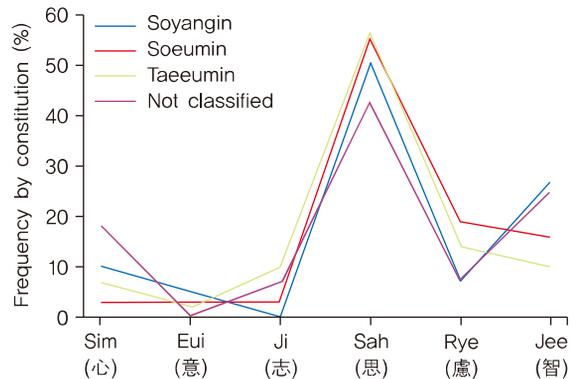


Fig. 7. Korean medicine recognition process when painting a t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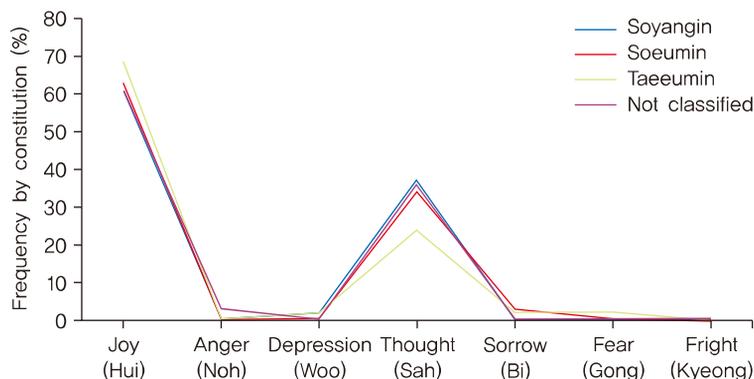


Fig. 6. Seven emotions of drawing a t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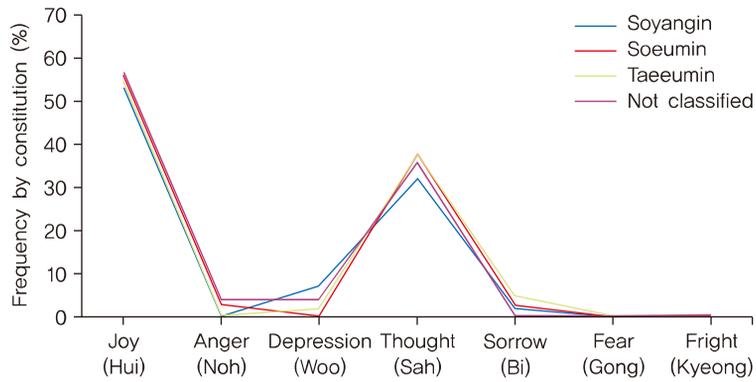


Fig. 8. Seven emotions of drawing a p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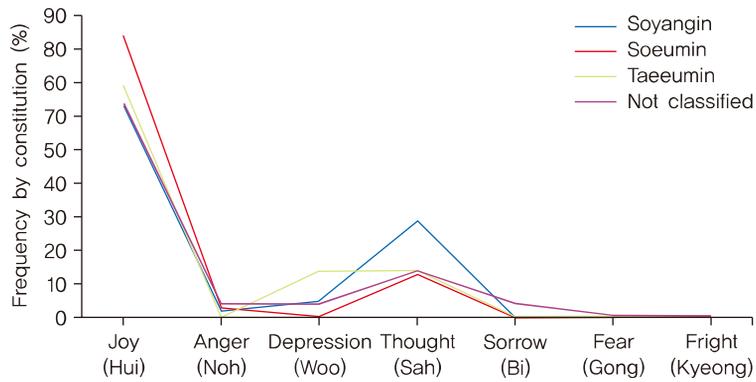


Fig. 9. Seven emotions felt in a person's pain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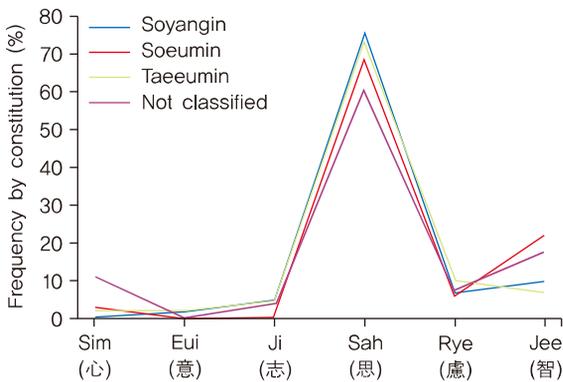


Fig. 10. Korean medicine recognition process when painting a person.

게 모호한 시각 또는 언어자극을 제시한 후 수검자가 이 자극을 내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여 반응하는 과정을 보며 내면의 심리 상태 및 성격 특성을 평가하는 검사이다<sup>9)</sup>. 인간은 특성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자극에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생각, 욕구, 감정, 갈등을 투영한다는 것이 투사 검사

의 기본 가정이다. 잉크반점을 사용하는 로르샤흐 검사(Rorschach ink blot test), 모호한 그림자극을 사용하는 주제 통각 검사(Thematic Apperception Test, TAT), 모호한 언어 자극이 사용되는 문장 완성 검사(Sentence Completion Test, SCT)와 더불어 수검자에게 특정 주제의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집-나무-사람 검사(House-Tree-Person, HTP)가 대표적이다<sup>9)</sup>.

그 중 HTP 검사는 Goodenough가 아동들의 지능을 간편하게 측정할 목적으로 개발한 인물화 검사(DAP)를 Buck이 확장시켜 고안한 검사법으로, 수검자에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집', '나무', '사람'을 통해 평소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욕구, 감정, 생각, 환경 또는 자신에 대한 경험 및 지각 등을 투사하도록 한다<sup>9)</sup>.

한의 임상 진료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투사적 검사 방법의 인성 검사로 특정 주제의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으로는 집-나무-사람(House-Tree-Person, HTP) 검사와, 이를

변형한 형태로 S-HTP (Synthetic House-Tree-Person) 검사와 K-HTP (Kinetic House-Tree-Person) 검사가 있다.

HTP 검사에는 인물화성격검사(Draw-A-Person Test, DAP)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물화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외에 추가적인 성격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물이 의 집과 나무의 그림을 통해 수검자의 자아, 그 사람이 현실과 관계를 맺는 정도의 양상, 가족이나 주변과 관련된 여러 감정과 소망, 자기 개념과 같은 성격의 핵심적 측면과 심층적인 감정 등을 얻을 수 있어 최근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sup>10)</sup>.

이런 투사적 그림을 Koppitz는 ‘비언어적 언어’라고 하면서 그림이 그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였다<sup>2)</sup>. 이는 그림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느낌과 생각, 공상, 갈등, 걱정,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지각을 담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림을 그리는 활동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피험자들은 개인의 발달사와 관련해 자신 및 자신의 환경과 관련된 경험들을 그림에 투사한다.

이러한 투사적 그림의 활동에 대해 한의학적으로는 五神(오신)의 작용과 心意志思慮智(심의지사려지)의 인지과정에서 유사한 면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칠정은 오신의 작용에 의한 기의 운용과정이라는 점에서 역시 투사적 그림 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신은 현상학적으로 관찰되는 기본적인 정신활동의 한 의학적 정신현상 관찰법을 말한다. 한의학에서는 현상을 五臟(오장)에 배속하여 해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오신 또한 각 장부에 배속되어 있으며, 그 장부에 속하는 다른 것들과 서로 연계되어 있다<sup>10)</sup>. 이런 것 중 하나가 七情(칠정)으로, 칠정은 오행의 규율에 따라 배속되기도 하고, 각기 가지고 있는 기의 변화의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따라서 칠정은 오신과 더불어 정신활동이나 정신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情이란 사물에 감촉되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으로 性情이라 보통 일컬으며<sup>11)</sup>, 이런 마음의 작용은 외부세계에 대한 心神(심신)의 반응이다. 이런 반응에 의해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에 대한 느낌을 情志(정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지는 대단히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나타난다<sup>12,13)</sup>. 이런 정지는 기본적인 몇 가지의 정서에 기초를 두고 외부상황이나

내재적 심리상태를 반영하여 나타나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정서에 대한 철학과 의학을 망라한 동양의 기준은 약간 차이가 있다. 공자는 “喜, 怒, 哀, 懼, 愛, 惡, 慾(희, 노, 애, 구, 애, 악, 욕)”의 七情(칠정)을, 노자는 “喜, 怒, 憂, 悲, 好, 憎 慾(희, 노, 우, 비 호, 증, 욕)”의 칠정을, 순자는 “好, 惡, 喜, 怒, 哀, 樂(호, 악, 희, 노, 애, 락)”의 육정을, 『左傳(좌전)』에서는 “好, 惡, 喜, 怒, 哀, 樂(호, 악, 희, 노, 애, 락)”의 六志(육지)를, 『呂氏春秋(여씨춘추)』에서는 “喜, 怒, 憂, 恐, 哀(희, 노, 우, 공, 애)”의 五志(오지)를 말하였으며, 불가에서는 “喜, 怒, 憂, 懼, 愛, 憎, 慾(희, 노, 우, 구, 애, 증, 욕)”의 칠정이라고 하였다<sup>14)</sup>.

한의학에서는 “喜怒哀思悲恐驚(희노우사비공경)”을 칠정이라고 하였다. 원래 『內經(내경)』에서는 情志(정서)를 “怒喜思憂恐(노 희 사 우 공)”으로 구분하였고, 오장이 주도하여 “五臟情志(오장정지)”라 하며 간칭하여 ‘五志(오지)’라 하였고, 또 ‘九氣(구기)’라 하여 情志(정지)가 氣機(기)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였다. 이후 『내경』의 五志說(오지설)과 九氣說(구기설)은 후세 의가들이 情志病變(정지병변)과 辨證論治(변증론치)를 연구하는데 이론기초를 세웠다<sup>15)</sup>. 이후 송대 陳無擇(진무택)의 『三因極一病證方論(삼인극일병증방론)』에서 희노우사비공경의 7가지 정지를 명확하게 ‘칠정’이라고 하였다<sup>16)</sup>.

『내경』이나 『삼인방』에서는 칠정의 병리적 변화에 대해 주안점이 되어 있어 각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미약하다. 따라서 저자는 엄의 구분<sup>16)</sup>을 참조하였는데, 엄은 희를 “快活明朗(쾌활명랑)한 정신활동으로 心情(심정)이 유쾌한 표현이다.”고 하였고, 노를 “욕망이 달성되지 못하고 억압을 받음으로 충동적 흥분으로 발하는 정서”라 하였으며, 우는 “情志沈鬱(정지침울)의 상태로서 비와 사의 중간형”으로, 사는 “정신을 집중하고서 어떤 문제를 생각하는 표현”이라고 하였고, 비는 “애상, 번뇌, 고통에 의하여 생겨나는 슬픈 감정으로 진퇴의 性(성)은 없고 갈아지는 성질이 있다.”고 하였으며, 공은 “공포심의 표현으로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같이 심기가 하락하는 뜻”으로 보았으며, 경은 “불의의 비상 사태에 직면하여 정신상에 갑작스럽게 나타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6)</sup>.

감정은 정서의 인지적 해석을 포함하는 사고의 측면이 있다<sup>17)</sup>. 즉 감정의 생성은 어떤 동거나 자극이 있어야 발생하게 되고, 어떠한 공통분모가 존재하는데, 이 공통분모는 동

물에게도 존재하는 생명체의 공통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식의 구체적인 반응양태와 강도는 인간에 따른 개 인차가 존재하며, 이는 주관적인 요소이다.

한의학에서의 “회노우사비공경”은 몇 가지 기본 정서를 기초에 두고 다양한 정서적 변화를 형성할 수 있고, 다양한 복합형식으로 나타내는 인간의 감정이며 인지적 해석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지과정은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개체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조건의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 유기체가 자극을 받아들여 패턴을 구성하고 해석하며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인지과정에는 감각, 지각, 기억 및 사고 등의 심리과정을 포함한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인지과정을 “心意志思慮智(심의지사려지)”라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sup>10)</sup>.

심의지사려지는 『靈樞·本神編(영추·본신편)』에 ‘지혜로운 자가 양생할 때 사시에 순응하고 한서에 적응하며, 기쁨과 노여움을 조화시키며 거처를 편안하게 하여 장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의학에서의 인지구조로 볼 수 있다.

‘심’은 인지의 첫 단계로 대상에 대하여 마음을 두는 것을 의미하며, ‘의’는 인지의 두 번째 단계로 마음에 두었던 것을 비로소 기억하는 첫 단계로 마음에 품기만 할 뿐 결정에 이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志(지)’는 인지의 세 번째 단계로 ‘의’ 중에서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으로 기억하는 두 번째 단계로 현재의 의식에는 없지만 상기 가능한 장기간의 기억이나 의식의 방향성을 말하며, ‘사’는 인지의 네 번째로 이전의 지에 근거하여 일체 사물의 변화를 연구하고 고찰하는 사고의 과정을 말한다. 즉 지향하는 바에 도달하기 위해 사물의 변화에 적응하여 현실을 지향하고 반복적으로 사고하는 과정, 또는 두뇌를 이용하여 해결점을 찾는 과정을 말한다. ‘려’는 인지의 다섯 번째로 이전 단계에서 인지된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간접적으로 반영된 대상으로 사고가 진행되며 아직 경험하지 못한 개념이나 형상까지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세밀한 사고를 통해 미래의 행동을 계획하고 심사숙고하는 대뇌과정을 말하며, ‘뺨(지)’는 의식을 바탕으로 일련의 사고 과정을 통합하여 뚜렷하고 구체적인 자기의사를 발현하는 단계로 인지기능의 마지막 단계이며 인지작용이 행동으로 나타나 사려를 바탕으로 외계의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sup>10)</sup>.

그리기 검사에 대한 한의학에서의 보고는 정 등<sup>3)</sup>의 사상

체질에 따른 반응특성에 대한 고찰에서 집-나무-사람에서의 분석 시 기준점에 대한 고찰을 하였으며, 박 등<sup>4)</sup>은 미술 치료의 한 방법으로 조현병 환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그림 그리기 치료를 시도하여 치료한 치험례가 있다. 정 등<sup>3)</sup>의 연구에서 사상체질에 따른 특별한 반응특성은 없었으며, 일부에서 약간의 고찰점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것처럼 본 연구에서 사상체질에 따른 특별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제까지 S-HTP 등의 그림 검사를 하면서 검사할 때의 칠정과 인지과정에 대한 고찰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검사할 때의 칠정과 인지과정에 대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143명이 S-HTP 검사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 중의 반응특성에 나타난 한의학적 칠정과 인지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찰할 수 있다.

전체 그림, 집 그림, 사람을 그릴 때의 감정은 ‘회’와 ‘사’가 우세하였다. 체질에 관계없이 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는 거의 없었다. 또한 인지과정에서는 ‘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뺨(지)’였다. 집과 사람, 나무를 그릴 때의 감정과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모두 ‘회’와 ‘사’였으나,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경우에는 ‘회’가 ‘사’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정상인에게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이완되는 즐거움이거나 매우 집중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며, 그 그림을 다시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일부가 ‘사’에서 ‘회’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림이 원하는 바를 잘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그림, 집 그림, 사람을 그릴 때의 인지과정은 ‘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뺨(지)’였다. 그러나 전체 그림과 집 그림에서 분류되지 않는 체질에서는 ‘려’가 다른 체질보다 높게 나타났고, 나무 그림에서는 분류되지 않는 체질에서는 ‘심’이, 소음인에서는 ‘려’가 다른 체질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체질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상인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갖게 되는 인지과정에서는 자신이 이전부터 받아왔거나 가지고 있던 사물을 현실에 맞추려 했거나 아니면 무언가의 해결 과정을 그려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한의학적 칠정과 인지과정을 중심으로 S-HTP 검사의 반응 특성을 살펴보았다. S-HTP 검사를 행하면서 갖게 되는 칠정과 인지과정은 체질과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

으며, 이를 확인하는 것이 그림을 해석함에 있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향후 한의학적 인지과정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S-HTP 검사를 해석함에 한의학적 인지과정을 좀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V. 결론

본 연구는 S-HTP 그림 검사의 반응 특성을 한의학적 칠정과 인지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알아보고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교 한의학과 졸업생 총 143명을 대상으로 하여 S-HTP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S-HTP를 그릴 때의 칠정은 '흥(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쓰(사)'였다.

2. S-HTP검사 시 그림을 그릴 때와 그리고 난 후 그림을 볼 때의 칠정은 '흥(희)'가 증가하고 '쓰(사)'는 감소하였다.

3. S-HTP를 그릴 때의 한의학적 인지과정에는 '쓰(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째(지)'였다. 다만, 분류할 수 없는 체질에서 '慮(려)'가 '째(지)'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의학적 칠정과 인지과정에 따른 S-HTP 검사의 반응 특성은 S-HTP 검사의 해석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REFERENCES

- Shin HG. House-Tree-Person Test(HTP), Hanyang Univ. Student Guidance Counseling Institute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2001;19:23.
- Koppitz E. Psychological evaluation of human figure drawings by middle school pupils. New York: Grune & Stratton. 1984.
- Jeong SY, Lee YB, Jeong HU, Kim KO. A Brief Study of Response Patterns in the S-HTP Test Based on Sasang Constitution,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20; 31(2):101-8.
- Park NE, Park JH, Kim DE, Kim SH, Chung DK. A Case Report of a Schizophrenic Patient Treated with Art Therapy and Korean Traditional Medicine,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6;27(3):147-55.
- Do JH, Nam JH, Jang ES, Jang JS, Kim JW, Kim YS, Kim NH, Han SM, Kim JD. Comparison between Diagnostic Results of the Sasang Constitutional Analysis Tool(SCAT) and a Sasang Constitution Expert. J. Sasang Constitution Medicine.2013;25(3):158-66.
- Do JH, Jang ES, Ku BC, Jang JS, Kim HG, Kim JY.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method using face, body shape, voice, and questionnaire information. BMC Complement Altern Med. 2012;12:85.
- Chung YI.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sponse Characteristics of S-HTP and K-HTP Drawing Tests. Korean J. of Art Therapy. 2015;22(5):1247-67.
- Jeong SY. An Analysis of the Response Patterns and Contents of the House-Tree-Person test(HTP test) by the Sasang Constitution, Graduate School of Dongshi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8.
- A Psychological Dictionary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www.koreanpsychology.or.kr/psychology/glossary.asp>(accessed May. 2020)
- The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of Neuropsychiatry of oriental medical schools in nation. The Neuropsychiatry of Oriental Medicine 3rd Edition. Seoul. Jipmoondang. 2016:32-5, 137-8.
- Chinese-Korean Grand Dictionary, Seoul: Minjoongseolim. 1993:484,494.
- Eom TS. A Look Back on the Seven-emotion.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1984;5(1):145.
- Moom JJ, Ahn GS, Choi SH. Oriental Pathology. Seoul: Gomoonsa, 1993:59.
- Park BJ, Kim SH. A Look back on Eastern and Western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jeong and Cancer. Journal of the Daejeon University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99;8(1):223-43.
- Song HC, Kim DH, Kim SH. A Study on the generation of seven-emotion in the esat-west medicine, Journal of the Daejeon University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00; 9(1):183-92.
- Eom HS. A Theoret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Chiljeong) and stress. The Journal of East-West Medicines. 1994;17(4):5-10.
- Park MW, Ahn SM, HA SD, Jeong DU, Lyoo IK. Development of Emotion Contents Recommender System for improvement of sentimental status. Science of Emotion and Sensibility. 2007;10(1):1-11.